

##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朴性植\*

### 서론

東武 李濟馬(1837-1900)는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 및 양생법을 연구하여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였다.

<東醫壽世保元>은 癸巳年(1893) 7월 13일부터 甲午年(1894) 4월 13일까지 9개월에 걸쳐서 漢南山中에서 저술을 마쳤다. (이하 甲午版이라 한다.) 이후 이제마는 乙未年(1895)에 下鄉하여 庚子年(1900) 卒時까지 약 6년동안 자신의 의학경험을 더하여 醫源論부터 太陰人論까지 改抄하였다. (이하 庚子版이라 한다.) 개정한 新本과 미처 개정하지 못한 舊本을 모아 1901年 咸興 栗洞契(金永寬외 6인)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東醫壽世保元의 醫源論과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病證論은 庚子년에 개정한 것이며, 다만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病證論중에서 甲午년에 쓰여진 病證論 篇名이 별도로 전해지고 있다.

즉 이제마는 甲午년에 少陰人 表病을 [外感腎病論]이라 한 것을 庚子년에 이르러 [腎受熱表熱病論]이라 개정하였고, 裏病의 [內觸胃病論]이라 한 것을 [胃受寒裏寒病論]으로 고쳤다. 少陽人論에 있어서도

[外感膀胱病論]이라 한 것을 [脾受寒表寒病論]으로 [內觸大腸病論]을 [胃受熱裏熱病論]으로 하였고, 太陰人論의 [外感腦顛病]을 [胃脘受寒表寒病論]으로 [內觸胃脘病論]을 [肝受熱裏熱病論]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太陽人論에 있어서는 甲午년의 舊本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제마가 病證論의 篇名을 개정하게 된 背景과, 甲午版과 庚子版에 나타난 四象人 病證論 篇名을 중심으로 體質病證精神을 이해하고자 한다.

### 문헌자료

- 1) 少陰人 外感腎病論 內觸胃病論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內觸大腸病論  
太陰人 外感腦顛病論 內觸胃脘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內觸小腸病論  
(甲午版 病證論 篇名)
- 2)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肝受熱裏熱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內觸小腸病論)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庚子版 病證論 篇名)

3) 太陽人 噎膈病太重於解休病 而怒心所傷者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 哀心深着則傷表氣 怒心暴發則傷裏氣 故解休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 怒性傷口膀胱氣 哀情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上目腎氣 喜情傷脾胃氣 太陰人 喜性傷耳腦頤氣 樂情傷肺胃脘氣乎 曰然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4) 肺部位在頤下背上 胃脘部位在頤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在脣 胃部位在膈 故脣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在腰 小腸部位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在腰脊下 大腸部位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 (臟腑論)

5)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為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出于耳而為神 入于頭腦而為腦海 腦海者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臟腑論)

6)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膈間兩乳為膏海 膏海者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出于目而為氣 入于背脊而為膜海 膜海者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臟腑論)

7)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為油海 油海者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出于鼻而為血 入于腰脊而為血海 血海者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外歸于肉 故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臟腑論)

8)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而為液海 液海者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出于口而為精 入于膀胱而為精海 精海者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臟腑論)

9)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非他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非他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察於人倫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非他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行於居處而哀別人之保己也 樂情非他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察於地方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非他樂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非他喜也 (擴充論)

10)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臍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性命論)

11)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性命論)

12) 然 少陽人裏熱證 太陰人表熱證 亦有汗多而小便赤澁者 宜察之 不可誤投藥 (少陰人 表病論)

13)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葛根蘆卜子湯 (太陰人 裏病論)

14) 太陽人 以吸聚之氣為保命之主 故腰脊小腸為本而腦頤胃脘為標, 太陰人 以呼散之氣保命之主 故腦頤胃脘為本 而腰脊小腸為標, 少陽人 以陰清之氣保命之主 故膀胱大腸為本 以腎胃為標, 少陰人 以陽暖之氣保命之主 故腎胃為本 而膀胱大腸為標也. (東武公 自註) 알기쉬운 사상의학 253p

15)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喜極不服則侈樂無厭 (四端論)

16) 此書 自癸巳七月十三日始作 晝思夜度 無頃刻休息 至于翌年甲午四月十三日 少陰人少陽人論則略得詳備 太陰人太陽人論則 僅成簡約 蓋經驗未遍而精力已憊故也. .... 甲午畢書後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抄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 而其餘諸論 未有增刪故 竝依新舊本 刊行 (東醫壽世保元 末尾)

17) 仲景意 胃約云者 津液漸竭 脾之潤氣漸約之謂

也 胃家實云者 津液已竭 胃之全局燥實之謂也(少陰人 表病論)

18) 太陰證下利清穀者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絳陰, 少陰證下利清穀者 當用官桂附子理中湯 健脾絳陰..... 太陰證泄瀉 重證中平證也 少陰證泄瀉 危證中險證也 (少陰人 裏病論)

## 본 론

甲午年 당시의 病證論 篇名에 나타난 體質病證精神과, 후에 庚子年에 改抄된 病證論 篇名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개정하게된 背景과 李濟馬 體質病證論의 精神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1) 甲午版 病證論 篇名(자료 1)의 意味

李濟馬가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처음 저술할 당시에는 이미 <格致藁> 獨行篇 儒略 反誠箴을 저술한 이후이다. 즉 이제마는 四象人의 心慾의 특징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事心身物論을 중심으로 한 四象哲學의 理論과, 既存의 醫學理論, 그리고 40세 이전부터 시작된 자신의 醫學經驗을 함께 모아 새로운 醫學理論을 定立하고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한 것이다.

따라서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에서 제시되고 있는 四象人의 心慾과 性情을 바탕으로 하여 體質證을 완성하고, 나아가 四象人의 病理의 特性까지도 一貫되게 설명할 수 있는 醫學理論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甲午版 病證論 篇名에 잘 나타나 있다.

처음 저술된 <東醫壽世保元>의 內容(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太陽人 病證論 등)을 중심으로 甲午版 病證論 篇名(자료 1)의 의미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 四象人의 病證은 모두 小한 臟을 중심으로 病證論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臟의 概念은 臟腑論의 四焦概念(자료 4)에 기초하고 있다. 즉 腎大脾小한 少陰人 病證의 腎과 胃는 모두 脾之黨이며(자료6), 脾大腎小한 少陽人 病證의 膀胱과 大腸은 모두 腎之黨이며(자료8), 肝大肺小한 太陰人 病證의 腦髓와 胃脘은 모두 肺之黨이며(자료5), 肺大肝小한 太陽人 病證의 腰脊과 小腸은 모두 肝之黨이다.(자료7) 또한 太陽人은 吸聚之氣를 保命之主로 하여 腰脊小腸을 本으로 하고 腦髓胃脘을 標로 하며, 太陰人은 呼散之氣를 保命之主로 하여 腦髓胃脘을 本으로 하고 腰脊小腸을 標로 하며, 少陽人은 陰清之氣를 保命之主로 하여 膀胱大腸을 本으로 하고 腎胃를 標로 하며, 少陰人은 陽暖之氣를 保命之主로 하여 腎胃를 本으로 하고 膀胱大腸을 標로 하였다(자료14) 따라서 四象人 病證論이 모두 本에 해당하는 小한 臟이 中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四象人의 病證은 모두 外感病과 內觸病으로 二大別하였으며, 外感은 表病이고 內觸은 裏病이다.

셋째, 性情과 四象人의 病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하며, 性에 의한 表病보다 情에 의한 裏病을 더 重한 병으로 인식하였다. 즉 太陽人은 哀心이 深着하여 表氣를 傷하고, 怒心이 暴發하여 裏氣를 傷하는데, 表證인 解休證보다 裏證인 噎膈病이 더 重하다고 하였다. 少陽人은 怒性이 口와 膀胱의 氣를 傷하고, 哀情은 腎과 大腸의 氣를 傷하며, 少陰人은 樂性이 目과 腎의 氣를 傷하고, 喜情이 脾와 胃의 氣를 傷하고, 太陰人은 喜性이 耳와 腦髓의 氣를 傷하고 樂情은 肺와 胃脘의 氣를 傷한다고 하였다.(자료3)

여기서 性情과 表裏病證과의 關係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趙<sup>1)</sup>는(자료3)의 腦髓 腎 腰 膀胱을 頭肩腰腎으

주1) 조황성:성정과 표리병의 관계, 사상의학회지 VOL5 NO1, PP55-57, 1993

로 해석하여 事心身物중 身에 해당하며 天人知行중 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胃脘 胃 小腸 大腸은 額臆臍腹으로 해석하여 事心身物중 物에 해당하며 天人知行중 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耳目鼻口의 天機(事)와 頭肩腰臀의 行(身)은 性에 대한 概念이며 表病의 概念으로 社會에 대한 나의 認識이고, 肺脾肝腎의 人事(心)와 額臆臍腹의 知(物)은 情에 대한 概念이며 裏病의 概念으로 나와 他人과의 관계에서 他人에 대한 나의 認識으로 보았다.

著者は 趙의 견해와는 달리 耳目鼻口와 腦頤 腎 腰 膀胱을 內部の 肺脾肝腎과 胃脘胃小腸大腸에 비해 단순히 人體의 表部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肺脾肝腎과 胃脘胃小腸大腸의 四臟四腑는 人體의 內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性은 表의 기운을 傷하고 情은 裏의 기운을 傷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擴充論(자료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哀怒喜樂의 性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통찰하는 聽視嗅味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人들이 서로 속이고, 업신여기며, 돕고, 보호하는 것을 哀怒喜樂하는 것을 말한다. 怒哀樂喜의 情은 肺脾肝腎이 人事를 行하는데 있어 他人이 나를 업신여기고, 속이고, 보호해주고, 돕는 것을 怒哀樂喜하는 것을 말한다.

즉 天機의 특성을 띄고 있는 哀怒喜樂의 性은 나 자신이 客體적 입장에서 人들이 공통적(大同의)으로 갖게 되는 人間 本然의 공통된 情緒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人事의 특성을 띄고 있는 怒哀樂喜의 情은 나 자신이 他人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독립적(各立)으로 겪게 될 때 발현되는 人性的 特徵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性命論(자료10-11)에서 耳目鼻口의 天(事)과 額臆臍腹의 知(物)는 大同과 博通으로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고, 肺脾肝腎의 人(心)과 頭肩腰臀의 行(身)은

各立과 獨行으로 공통된 특징을 나타낸다.

性情과 表裏病의 關係에서 表病은 性에 의한 것이며, 天(事)과 知(物)의 개념이며, 大同과 博通의 개념이다. 裏病은 情에 의한 것이며, 人(心)과 行(身)의 개념이며 各立과 獨行의 개념이다.

따라서 性(나 자신이 직접 주체가 되기보다는 객체로서 작용하고 외부적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성적 특징)이 深着하여 表氣를 傷하여 外感病(表病)이 되고, 情(나 자신이 직접 주체적으로 작용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직접적이고도 개개인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인성적 특징)이 暴發하여 裏氣를 傷하여 內觸病(裏病)이 되며, 表病에 비해 더 重하다.

그러나 性情에 대한 表裏病證의 개념이 완전히 二分化된 것이 아니라 性이 極한 상태에서는 情을 動하여 太陽人의 忿怒激外, 少陽人의 悲哀動中, 少陰人의 喜好不定, 太陰人의 侈樂無厭의 상황이 나타난다 하여 性情 相互間의 關聯性을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자료15)

이와같이 李濟馬는 처음 病證論의 구성함에 있어 四象人의 心慾과 性情 및 體質證을 바탕으로 四象人의 病理的 상황을 연결하여 病證論을 저술함으로써 四象醫學 理論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즉 四象人의 性情과 病證과의 關係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病理的 症狀를 크게 外感病(表病), 內觸病(裏病)으로 요약하였고, 또 四象人의 臟理的 특성에 따라 保命之主를 주관하는 小臟을 기본으로 하여 病證論을 구성하고자 하는 理論的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四象哲學의 思考와 四象醫學의 理論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演繹的 思考가 중심이 되어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庚子版 病證論 篇名(자료 2)의 意味

甲午版의 病證論 篇名은 庚子年에 이르러 太陽人 病證論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

즉 1894년에 저술된 이제마의 초기 病證論의 精神은 1900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후 약 6년간의 臨床經驗을 통하여 변화하게 된다. 처음의 甲午版 저술 당시보다 보충된 臨床經驗을 통하여 자신의 理論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에 획득한 臨床經驗과 醫學理論을 새로이 정립하여 醫源論, 少陰人 病證論, 少陽人 病證論, 太陰人 病證論을 새로 改抄하게 된 것이다. 이때 단순히 病證論의 內容만 개정한 것이 아니라 篇名까지 개정하게 된 바로 이점이 李濟馬가 初期에 설정한 病證理論이 실제 臨床에서 격계되는 부족함과, 四象人 體質病證의 特徵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臨床經驗의 축적이 부족했던 太陽人論은 初期 理論의 背景을 가진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庚子版에 개정된 病證論 篇名에 나타난 體質病證의 精神은 初期 甲午版에서 제시하고 있는 病證論 構成理論의 基本精神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初期 甲午版 病證論의 精神이 演繹的 思考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정된 病證論은 실제 臨床이 진행되면서 새로이 축적된 醫學理論과 經驗을 歸納的 思考로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實證的 體質病證精神으로 要約된 것이 庚子版 病證論 篇名の 意味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정된 病證論의 篇名에서 전체적인 사상인 병증이론을 끌어내려는 시도나, 四象人 病證論을 規則화된 理論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현재 제시되고 있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論 篇名の 일정한 規則을 찾아 太陽人 病證論을 다시 그러한 規則의 틀 속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 또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하겠다. 왜냐하면 太陽人의 臨床經驗이 축적되고 나서, 다시 이것들을 要約하는 과정에서는 太陽人 病證論 篇名이

재구성될 수 있겠으나,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篇名の 일정규칙을 근거로 太陽人 病證篇名을 다시 理論的 틀 속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는 李濟馬의 實證的이고도 歸納的인 體質病證精神에 위배된다 하겠다. 처음 병증론을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理論의 규율 속에서 太陽人病證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李濟馬가 6년간의 세월동안 太陽人 病證論 篇名 하나를 개정하지 못했겠는가? 이는 太陽人의 經驗蓄積이 부족한 데 그 原因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李濟馬의 實證的 醫學精神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庚子版 病證論의 篇名은 實證的 體驗과 醫學理論을 歸納的 思考로 재정리 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四象人 體質病證의 特性을 가장 適合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庚子版 病症論 篇名에서 四象醫學理論을 演繹的 思考로 유추해 내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각 體質病證의 特性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하겠다.

庚子版 四象人의 病證論 篇名은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少陰人과 太陰人의 病證은 각 體質에 따라 小한 臟과 大한 臟에서 발현하는 病證으로 구분하였고, 少陽人의 病證은 大한 臟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둘째,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은 大한 臟이 表病證을 나타내고 小한 臟이 裏病證을 나타내고 있으며, 太陰人의 病證은 小한 臟이 表病證을 나타내고 大한 臟이 裏病證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少陽人과 太陰人의 病證은 表寒病證, 裏熱病證으로 나타나는데, 少陰人의 病證은 表熱病證, 裏寒病證으로 나타난다.

넷째, 少陰人과 太陰人의 병증은 각 體質의 大한 臟은 臟(腎과肝)으로 나타내고 小한 臟은 腑(胃와胃脘)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少陽人 병증은 大한 臟의 臟(脾)과 腑(胃)로만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庚子版 病證論 篇名에서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에게 모두 共通的인 一貫性을 찾기 어렵다. 더우기 太陽人 病證論 篇名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陰人(少陰人, 太陰人)과 陽人(少陽人, 太陽人)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臟理의 大小에 따라 太陰人과 太陽人, 少陰人과 少陽人으로 구분하던지, 또는 太陽人과 少陰人, 太陰人과 少陽人으로 구분하여 어떤 一貫된 特徵을 찾는 것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太陽人論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病證論의 어떤 명확한 특징적 規律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개정된 病證論의 篇名을 甲午版 病證論의 篇名과 같이 演繹的 思考에서 體質病證의 規律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나, 太陽人 病證論의 篇名을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論의 일부 規律에 맞추어 개정하여 體質病證을 理論의 側面에서 해석하려는 시도, 모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초기에 수립된 演繹的 思考의 體質病證精神이 이후 축적된 臨床經驗을 통해 歸納的方法으로 정리하고자 病證論을 개정한 李濟馬의 實證的 醫學精神을 간과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著者는 庚子版 病證論 篇名이 제시하고 있는 體質病證의 特性和 개정하게된 背景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庚子版 病證論 篇名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째, 庚子版 病證論 篇名은 四象人의 體質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體質病證의 특징을 歸納的으로 정리하여 가장 적절히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칭이다.

둘째, 예를 들어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이란 “소음인의 신이 열을 받아 걸이 열한 병을 논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腎”은 病을 받는 臟腑나, 病變이 주로 발현되는 部位를 지칭하는 概念으로 李濟馬 臟腑論의 四焦的 部位를 의미한다. “受熱”은 병인의 특성을 의미하며, “表熱病”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라 하겠다. 나머지 篇名도 이와 같다.

셋째, 甲午版과 같은 外感病, 內觸病의 구분이나,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한다는 확일적 구분은 없다. 그러나 表病은 外感, 裏病은 內觸의 概念을 포함하고 있으며 表裏病證의 重, 險證에는 반드시 心理狀態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性情의 均衡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篇名에서 寒熱은 絶對的 概念의 寒熱이 아니라, 各各의 體質안에서 相對的 概念의 寒熱을 의미하며, 발현되는 病症의 特性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太陰人의 表寒病과 裏熱病이 表證은 반드시 寒證이며 裏證은 반드시 熱證이라고 하는 絶對的 概念이 아니라, 太陰人의 表病은 裏病에 비해 寒의 경향이 많고, 裏病은 表病에 비해 熱의 경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제마는 太陰人에 表熱證(자료 12-13)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개념에서 이해된다.

다섯째, 甲午版이 小한 臟을 중심으로 病證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庚子版에서는 四象人 臟理의 大小에 따라 大함으로 인한 病證과 小함으로 인한 病證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그러나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證의 胃는 少陽人 裏熱病證이 특히 胸膈熱證으로 발현되는 특징을 표시하기 위한 部位的 概念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庚子版 病證論 篇名이 實證的 醫學精神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각 體質내에서 臟과 腑의 차이 즉 少陰人의 腎(腎之黨에서 腎臟)과 胃(脾之黨에서 胃腑), 少陽人의 脾와胃, 太陰人의 胃脘과 肝의 차이는 表裏病證 중에서 李濟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病證이며 더 급한 病證에 臟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자료17-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危證 險證에 臟의 명칭을 사용하고 重證 平證에 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少陰人 表熱病(亡陽病), 少陽人 表寒病(亡陰病), 太陰人 裏熱病(燥熱病)이 특히 이제마가 강조하는 病證이며, 각 체질내에서 좀 더 重하고 急한 病證이라 하겠다. 물론 각 체질마다 表病과 裏病 모두에 있는 輕證(順證), 重證(逆證)의 구분과는 다른 측면이다.

## 결 론

甲午版 病證論 篇名과 庚子版 病證論 篇名이 가지는 意味를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甲午版 病證論 篇名은 李濟馬가 자신의 四象哲學을 새로운 醫學理論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四象哲學과 醫學理論의 一貫性을 수립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제시된 것이다.
2. 庚子版 病證論 篇名은 초기 醫學理論이 설정되고 난 후, 축적된 臨床經驗과 醫學理論을 再整

理 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타나는 四象人 體質病證의 特性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제시된 것이다.

3. 李濟馬의 初期(甲午版) 醫學精神이 四象哲學과 醫學理論이 중심이 된 演繹的方法論을 추구하였다면, 後期(庚子版) 醫學精神은 실제 臨床經驗과 醫學理論이 중심이 된 歸納的方法論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의 醫學精神은 가장 實際的이고 實證的인 醫學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背景에서 體質病證論 篇名에서 四象人 體質病證의 理論을 유추해 내기보다는, 實證的 醫學精神으로 四象人 體質病證의 特性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2.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P253, 하나미디어, 서울, 1993